

제주 '세계유산축전' 이어간다... 유산마을이 주도

4년째 맞는 올해 국비 지원 없이 도비로... 오는 10월 개최 지속가능성 도전·글로벌 자연유산 브랜드 위상 확립 기회로

올해도 '세계유산축전-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열린다.

4년째 맞는 올해 축전은 이전과는 달리 문화재청 국비 지원없이 지방비를 투입해 이어간다. 예산 규모가 줄면서 예전에 비해 행사 기간과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되는데 핵심 콘텐츠인 로드프로그램 '불의 숨길'과 '숨길원정대'를 비롯 '세계자연유산마을을 찾아서' 등은 그대로 운영된다.

오는 10월 3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올해 세계유산축전은 거문오름 세계자연유산마을의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상생·공생'을 주제로 내걸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개최를 바탕으로 지속

적인 연결을 위한 노력이 자연유산과 함께 상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세계자연유산의 가치 확립을 위해 자생력 확보와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올해 축전을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전과 글로벌 자연유산 브랜드로서의 위상 확립 기회로 삼고 있다.

행사는 세계자연유산마을보존회가 주관한다. 7개의 세계자연유산마을(선홍리, 선홍2리, 덕천리, 월정리, 김녕리, 행원리, 성산리)로 구성된 보존회는 지난해부터 축전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마을보존회 임영철 회장은 "이번 세계유산축전은 도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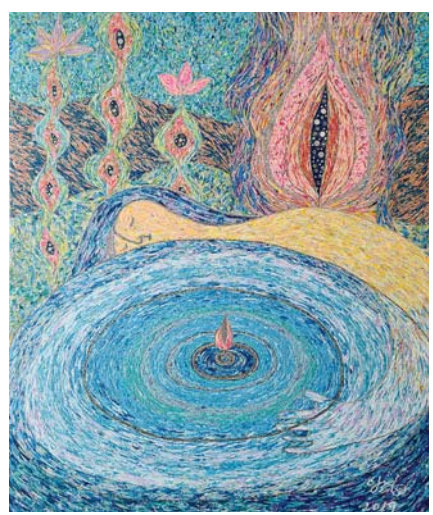


지난해 제주 세계유산축전 '만장굴탐험대' 참여 모습.

들이 자연유산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해 점차적으로 늘려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축전 총감독은 제주출신 김명수 씨가 맡는다. 축전의 성

공과 내실을 위해 기획연출단을 재구성한 김 총감독은 마을 지역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일회성 축제가 아닌 지속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제주만의 문화·예술·관광·교육 콘텐츠로서의 기반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강인경 작 '뿌리'

국립제주박물관 '고으니모르홀' 본격 가동

첫 전시 강인경 작가 '낙원' 올해 7곳에 전시 공간 지원

도민 참여형 갤러리로 탈바꿈한 국립제주박물관 '고으니모르홀'이 이달 첫 전시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기존 어린이 체험교육공간으로 쓰였던 '고이니모르홀'은 154㎡ 정

도의 크기로 소규모 전시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면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제주박물관의 아름다운 정원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고이니모르홀'의 문을 여는 첫 전시는 강인경 작가의 자개색지화 '낙원(樂園)' 전이다.

힐링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자개색지화와 자수화 20여 점을 선보일 예

정이다.

전시는 크게 3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검은 천에 금실과 은실로 제주의 자연을 담아 수놓은 자수화와 함께 작업 과정을 볼 수 있는 영상물도 소개된다. 전시기간은 이달 9일부터 28일까지다.

한편 국립제주박물관은 올해 도내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도민 참여형 전시지원 사업으로 제주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계 개인 및 단체 7곳에 전시 공간을 지원한다.

제주4·3에서 광주5·18을 부른다

제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 제주행사 이달 18일 관덕정서

제43주년 5·18민중항쟁 기념 제주행사가 이달 18일 오후 3시 관덕정 앞마당에서 진행된다. 폭낭의 아이들과 투비 TOBE가 마련한 자리다. 이날 행사는 5·18민주영령 추모

목념을 시작으로 추모 공연, 민주영령 100명의 이름 불러주기와 비문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 5·18 희생자 유가족인 김연우 씨가 광주5·18희생자와 제주4·3희생자 모두를 아우르는 '진혼의 춤'을 선보인다.

주최측은 "이번 제43주년 5·18민중항쟁 제주행사는 5·18 희생자들의 이름과 비문을 낭독함으로써 '5·18민중항쟁과 함께 제주4·3 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 고자 하는데 그 의의와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가쁜장 아기' 주제 음악극 대구 무대에

제주예총, 파워풀대구 페스티벌 첫 참여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연극·국악·무용·연예예술인협회 연합공연단(제주예총 공연팀)이 오는 12~14일 대구 국제보상로 일대에서 열리는 '2023 파워풀대구 페스티벌'에 참여한다.

제주예총 공연팀이 '파워풀대구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공연팀은 13일 대구파래

이드에 참여한 후 본 공연에서 음악극 '운명을 다스리는 가쁜장 아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제주예총 김선영 회장은 "제주만의 다양한 신화 속 신선하고 의미가 있는 신들을 알리는 공연을 통해 페스티벌을 찾는 관람객들과 대구 시민들의 탐라문화제 관심과 방문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학주의 시·詩·인는 화요일 (18)

봄밤 송재학

봄밤은 비애를 만진다
 며칠 내내 빗소리
 그 집은 지붕이 낮다
 다리 저는 늙은 남자는 이불을 펴고
 나이 찬 딸을 기다린다
 딸이 엇그제 들어는 약장의
 서랍은 스무 개도 넘는 약장의
 옷철이 군데군데 벗겨진 약장의
 서랍마다 빗물을 채우고도
 비는 오래도록 그치지 않는다
 도둑행이가 암컷을 쫓아가 버린 밤
 연탄 냄새마저 비에 막혀 고인다
 마당 구석의 꽃들이 피우는 것은 봄

신화·써머
오른지기 eioh@ihalla.com

다리 저는 남자는 세상의 모든 늙은 남자를 말하는 것이겠지만, 그가 누구든 유일무이한 한 사람을 지시하는 데에도 쓰인다. 다리는 세상을 걸어온 다리이며 세상을 걸은 탓에 절게 된 다리이다. 비는 그 남자에게 온다. 서랍이 스무 개도 넘는 약장은 지붕 낮은 '그 집'엔 존재하지 않겠지만, 두 부녀의 몸과 마음엔 분명히 들어 있는 약장이다. 서랍마다 약이 아니라 빗물이 채운다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 옷철이 군데군데 벗겨진 약장 같이 이야기하는 약장이야말로 이미 변형된 혹은 변형되기를 기다리는 늙은이 자신이며, 과연 나이 찬 딸과 함께 채워야 하는 빗물의 시간에 다름 아닐 것이다. 어쩌면 비는 그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읽은 시에는 비 오는 봄밤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나머지 문장과 단어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할 수 있다. 이런 밤은 시인에게도 건디기 어려운 계절이어서 모래톱처럼 씻기지만 하는 마음, 그거 아닐까. <시인>

새 봄맞이 위닉스 공기청정기

* 시즌 단독 특가 *

봄 맞이 공기 집중 관리 시즌! 위닉스와 함께 미세먼지 대비 준비 끝!

2023.05.01(월) ~ 05.31(수)까지

<p>위닉스 공기청정기 타워Q(13평형) 정상가 259,000원 시즌 한정 단독특가 139,000원</p>	<p>위닉스 공기청정기 제로3.0(15평형) 정상가 229,000원 시즌 한정 단독특가 149,000원</p>
<p>위닉스 공기청정기 타워프라임(26평형) 정상가 549,000원 시즌 한정 단독특가 399,000원</p>	<p>위닉스 공기청정기 마스터(30평형) 정상가 699,000원 시즌 한정 단독특가 399,000원</p>

구입문의 | 제주총판 및 A/S센터
 064-758-0990~1
 주소: 제주시 연삼로17(연동)

WINIX novita
 노비타 제주점 (주제인일보 맞은편) A 공항
 신광로터리 | 뱀스 | 오양병원 | 신제주로터리 | 마리아사거리 | 마리나호텔